

“어색하지만...이대로 끝낼수는 없잖아요”

KIA 마무리캠프 참여 한기주 고참 신분 실감 안하지만 부상없이 마운드·팀에 적응

신인 같은 마음으로 캠프를 기다리고 있는 10년차 한기주다.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캠프가 28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작된다. 한 시즌을 정리하는 시간이자 내년 시즌의 첫 걸음이기도 한 마무리 캠프. 투수 한기주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캠프다.

1987년생 한기주는 이번 캠프 투수조 최고참이다. ‘말형’으로 후배들을 이끌어야 하는 한기주는 캠프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 고참이라는 책임감, 오랜 부상과 재활로 그라운드 밖에 머문 시간이 길어지면서 느껴지는 어색함도 있다.

“마무리 캠프 가는 게 어색하다. 부상, 우승 등으로 마무리 캠프를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다. 고참 자리에서 캠프를 치러야 하는 게 실감이 안 나고 잘 모르는 후배들도 있어서 어색하기는 하다”고 웃은 한기주는 “그래도 뭐 특별한 게 있겠나. 따로 후배들에게 뭐라고 할 필요 없이 내 역할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모범적인 고참으로 한 달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한기주는 내년 시즌을 위한 답도 찾아야 한다.

올 시즌 한기주는 1064일 만에 마운드에 오르며 부활을 위한 서막을 열었다. 7경기, 3.24의 평균자책점이 올 시즌 한기주의 성적이다. 특별할 것 없는 기록이지만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한기주는 “공백이 길다 보니 감각도 많이 떨어졌고 과연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수 있을지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다. 목표했던 만큼 1군에 있지 못했고, 사람들의 기대 만큼 좋은 역할은 하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지를 알 수 있었던 시즌이었다. 다시 공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 캠프에서 부상 없이 마운드와 팀에 익숙해지겠다”고 밝혔다.

7월16일 LG와의 홈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른 한기주의 시즌 마지막은 8월8일 NC와의 경기였다. 확대 엔트리가 적용된 가을에도 한기주는 1군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더 먼 미래를 위한 복안이었다.

김기태 감독은 “팀 상황 탓에 한기주를 패전조 자리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 본인 스스로 처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 1군에



KIA의 마무리 캠프 투수 최고참인 투수 한기주(왼쪽)가 26일 챔피언스필드 외야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서 다시 공도 던져봤고 일찍 내년 시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대진 투수 코치도 “올 시즌은 한기주의 공이 아니지 않은가.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동기부여는 필요했다. 본인

스스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한기주 자신의 공을 던지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한기주를 2군으로 내려보내던 날 내년을 목표로 해 스스로 훈련·등

판 스케줄을 짜고 준비하라고 배려하고, 격려했다. 내년을 보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한기주가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를 통해 다시 속도를 내게 된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이대호, 한국서 온 영웅” 일본시리즈 2차전 투런포

이대호(33·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일본 시리즈에서 ‘한국인 거포’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26일 “이대호는 한국에서 온 영웅다웠다”고 극찬했다. 이대호는 지난 25일 일본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일본시리즈 2차전에서 4번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4회 결승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3타수 1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다.

그는 24일 시리즈 1차전에서 4타수 3안타를 쳤다. 이번 일본시리즈 7타수 4안타(타율 0.571) 1홈런 2타점의 맹활약이다.

소프트뱅크는 7전4승제의 일본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모두 쓸어담아 2년 연속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지난해 일본 시리즈에서 18타수 6안타(0.333) 1홈런 4타점으로 활약하며 ‘큰 경기에 강한 선수’라는 인상을 심은 이대호는 올해 일본시리즈에서는 ‘영웅’으로 한 계단 더 올라섰다.

산케이스포츠는 “이대호가 초구 커브를 놓치지 않고 받아쳐 홈런을 만들고 벤치를 향해 승리 포즈를 취했다”고 2차전 결승 홈런을 친 상황을 묘사하며 “이대호는 역시 한국에서 온 영웅다웠다”고 칭찬했다. /연합뉴스



‘끝내기쇼’ 동성고,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고교 야구대회 우승

진흥고 3-2로 물리쳐

광주 동성고가 제4회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고등학교 야구대회 우승팀이 됐다.

동성고는 최근 함평 대동야구장에서 진행된 대회 결승에서 광주진흥고를 3-2로 꺾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사진)

준결승전에서 인상고에 5-3 승리를 거둔 동성고는 진흥고와의 결승에서는 9회 말 끝내기쇼를 펼치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동성고는 우승기, 우승트로피, 야구용품 등을 부상으로 받았다. 준우승(진흥고)과 3위 2팀(정읍 인상고·화순고)에게도 트로피와 상장, 부상으로 야구용품이 각각 주어졌다. 또 참가한 모든 팀에게도 야구용품이 참가기념품으로 증정됐다.

한편 이번 대회는 지역 야구 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 전남·북 지역 5개 고등학교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다했다.

대회 시상 내역

▲최우수선수: 박건우(동성고) ▲타격상: 전정배(0.571·동성고) ▲우수투수상: 이호선(동성고) ▲최다안타상: 박민규(6안타·진흥고) ▲홈런상: 노승환(1개·광주일고) ▲최다도루상: 이용진(2개·진흥고) ▲최다타점상: 조종현(3타점·진흥고) ▲수훈상: 김경훈(동성고) ▲감투상: 정운환(진흥고) ▲미기상: 윤형빈(진흥고)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미선 세계 양궁 ‘왕중왕전’ 우승

〈광주여대〉

‘무서운 10대’ 최미선(19·광주여대)이 올해 세계 양궁 ‘왕중왕전’에서 2관왕에 올랐다.

최미선은 26일(한국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15 세계양궁연맹(WA) 월드컵 파이널대회 리커브 여자부 결승에서 이 대회에 4번이나 출전한 인도의 양궁스타 데피카 쿠마리를 세트점수 6-2로 이겼다. 최미선은 세계랭킹 1위와 홈팀간의 단판 이벤트로 치러진 혼성팀전에서도 김우진과 조를 이뤄 멕시코 팀을 세트점수 6-2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올해 상하이 월드컵 1차대회에서 세계무대에 데뷔한 ‘신예’ 최미선은 여자부 세계 랭킹 1위와 월드컵 랭킹 1위를 동시에 거머쥔 데 이어 ‘왕중왕’까지 차지하며 기본 좋게 시즌을 마무리했다.

2012 런던올림픽 2관왕 기보배(광주시청)는 8강에서 라젠잉(대만)에게 세트점수 2-6으로 패했다.

리커브 남자부에서는 김우진(청주시청)이 동메달을 땀다.

올해 세계 랭킹 1위, 월드컵 랭킹 1위, 세계선수권 우승 등을 차지했던 김우진은 4강전에서 장사를 발라동(프랑스)에게 숏오프 점전 끝에 5-6으로 패했다. 김우진은 그러나 동메달 결정전에서 폴린 클리미직(미국)을 7-3으로 이기면서 자존심을 지켰다.

남자부 우승은 8강에서 이승운(코오롱-엑스텐보이즈)을 6-4로 꺾은 미겔 알바리노 가르시아(스페인)의 몫이었다. /연합뉴스



월드컵 파이널은 매년 월드컵 랭킹 1~7위와 개최국 선수 1명을 초청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르는 대회로 세계 양궁의 왕중왕전으로 불린다. 국가별로 최대 2명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월드컵 랭킹 남자부 4위인 구본찬(안동대)과 여자부 3위인 강채영(경희대)은 출전권을 얻지 못했다. /연합뉴스



한국 배드민턴 또 ‘금빛 호흡’

이용대-유연성·고성현-김하나 佛오픈배드민턴 우승

배드민턴 남자복식 이용대(삼성전기·왼쪽)-유연성(수원시청·오른쪽)과 혼합복식 고성현(김천시청)-김하나(삼성전기)가 나란히 ‘2015 프랑스 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두 복식조는 지난주 ‘덴마크 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이용대-유연성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스타드 피에르 드 쿠베르탱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9위 마츠 필

러 콜딩-마츠 콘라드 페테르센(덴마크)을 2-0(21-14 21-19)으로 꺾었다.

이용대-유연성은 지난 달에도 일본오픈 슈퍼시리즈와 코리아오픈 슈퍼시리즈에서 2주 연속 우승을 거둔 바 있다. 혼합복식 세계랭킹 6위인 고성현-김하나는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9위 프라빈 조던-데비 수산토(인도네시아)를 2-1(21-10 15-21 21-19)로 누르고 우승을 확정했다. 남자복식 김사람-김기정(이삼공사)-신승찬(삼성전기)은 이 대회에서 각각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물소 경주 26일(현지시간) 태국 방의 동남쪽에 있는 촌부리마을에서 열린 물소 경주에서 참가자가 자신의 물소를 타고 트랙을 달리고 있다. 올해로 143년의 전통을 가진 촌부리의 물소경주는 농번기에 고생했던 물소들을 격려하고 휴식을 주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연합뉴스